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1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16)	봉헌 (216)	성체 (165)	파견 (121)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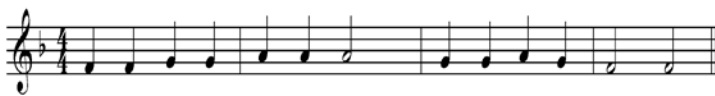
제1독서 | 탈출 3,1-8ㄱ.13-15

화답송 | 시편 103(102),1-2.3-4.6-7.8과 11(㉠ 8ㄱ)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 1코린 10,1-6.10-12

복음환호송 | 마태 4,17 참조



Praise to you, Lord Je- 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 ry!

복 음 | 루카 13,1-9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17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3/24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3/3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박 다니엘
4/7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70	\$10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23	유 요한/ 유 마리아	4/27	김 마론/ 김 헬레나
3/30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5/4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4/6	홍 마르코/ 홍 아네스	5/11	손 아놀드/ 손 쟈마
4/13	김 요아킴/ 고 안나	5/18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0	김유스티노/김유스티나	5/25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성가대 봉사.

-백윤형 알베르토 |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저는 전역 후 군종교구 공식 단체인 앳숨성가대에 가입했습니다. 앳숨(Ad Sum)은 라틴어로 ‘예,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단체의 소명을 잘 표현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앳숨성가대도 국군장병이 있는 곳이라면 전·후방 어디라도 찾아가는 성가대입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군종신부님들께도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성가를 통해 하느님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앳숨’은 주 활동층이 젊은 청·장년들이지만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단원들도 있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다양한 우리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성가를 통해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소명과 봉사 정신입니다. 특히 힘든 병영 생활에 지친 병사들과 함께 다시금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들의 영성도 깊어짐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가의 내용은 모두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단원들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감동합니다. 또한 우리의 합창을 듣는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모두 하느님의 자녀라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미사 봉헌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일화도 그간 참 많았습니다. 한 겨울에 난방이 되질 않는 곳에서 반주자가 손가락이 얼어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여야 하는 일도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무반주로 성가를 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산에 있는 공군성당을 방문했을 때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4월 4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임원회의는 4월 1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Homeless Feeding 3월 30일 st. Vincent de Paul center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새 양말 및 현금 도네이션 받습니다. (오늘까지 입니다.)

따뜻한 정성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매주 금요일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사순특강 및 찬양피정 3월 31일 오후 6시

전 요아킴 주임신부님의 사순특강이 3월의 마지막 주일 6시에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는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취소되어 모두 급히 기차표를 구하고 서울까지 입석으로 올라온 기억도 납니다. 장거리리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봉사 여정에서 느낀 각자의 신앙 고백 나눔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노래를 연습할 때는 성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깊이 파고들어 어느 순간 목이 메어 오며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성가를 통한 묵상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됩니다. 우리 성가대가 성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느끼며 신자들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운 회개의 때, 이 사순의 기도 여정을 통해 부활의 광과르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일상의 반복으로 지친 단원들이 늦은 저녁까지 연습하고 기쁜 얼굴로 집에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가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복음묵상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5)